

공무국외여행보고서

1 출장개요

- 목 적 : 지역자원을 활용한 자치단체 브랜드 전략 및 주민 홍보방안 연수
- 기 간 : 2019. 3. 25.(월) ~ 2019. 3. 30.(토) / 5박 6일
-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: 러시아, 중국
- 여행자 : 1명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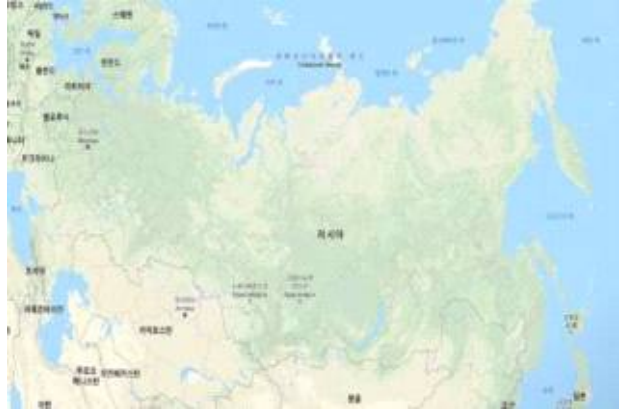
2 출장내용

- 주요 활동 내용

일 자	지 역	주요일정
1일차 3/25 (월)	인 천 하바롭스크	- 광주 → 인천공항 → 하바롭스크 공항 - 하바로프스크 항일유적지 방문 - 영원의 불꽃, 랜드마크 동상 견학 - 시베리아 횡단열차 탑승-숙박
2일차 3/26 (화)	블라디보스톡	- 블라디보스톡 역 도착 - 러시아 지역문화 체험(반야) - 블라디보스톡 신한촌기념비, 서울거리참배 - 혁명광장, 개선문 방문 - 블라디보스톡 관광안내소 견학
3일차 3/27 (수)	우수리스크	- 라즈톨노예 역 견학 - 이상설 선생 유허비 참배, 발해성터 견학 - 우정마을 방문(특강/고려인의 이해) - 최재형선생 고택 및 기념관 방문 - 고려문화센터 견학(특강/러시아 이해와 한인의 이주사)
4일차 3/28 (목)	크라스키노 도문	- 안중근 단지 동맹비 참배(특강/안중근과 연추 의병활동) - 러시아 랜드마크 하산호 전승탑 견학 - 러시아-중국 국경 통과 - 도문 두만강 광장 방문
5일차 3/29 (금)	용정 연길	- 명동촌 한일유적지 방문 - 3.13 반일 의사릉, 윤동주 묘지 참배 - 연변박물관 방문(특강/조선족의 문화와 생활)
6일차 3/30 (토)	인 천	연수 종합평가 좌담회 인천 도착 광주 도착

3 주요방문도시

□ 러시아 연방(Russian Federation)

국 기		위 치 도			
					
일 반 현 황		정 치 현 황		경 제 현 황	
수도 : 모스크바 언어 : 러시아어 면적 : 약 17,098,242km ² (세계 1위) 인구 : 약 143,965,000명(세계 9위) 종교 : 정교회, 이슬람교 등		공화제(국민주권), 민주주의(대의제), 연방국가, 정교분리, 이원집정부제, 양원제, 다당제, 성문법주의		수출 : 3,378억\$(세계 15위) 수입 : 3,239억\$(세계 17위) 전체 GDP : 1조 7,199억\$(세계 11위) 1인당 GDP : 11,947\$(세계 63위)	

○ 하바로프스크 영원의 불꽃, 아무르스키 동상

- 하바로프스크 명예광장에는 2차 세계대전 전몰자와 소비에트 영웅 등 참전용사를 추모하기 위해 1985년 조성한 전쟁기념비와 365일 꺼지지 않는 영원의 불꽃이 있음
- 극동지역 최대의 강인 아무르강변에 위치한 공원에는 러시아 정치가로 동부 시베리아 총독을 지냈던 니콜라이 무라비요프 아무르스키를 기리위한 동상이 세워져있음.



영원의 불꽃

○ 블라디보스톡 신한촌 기념비

- 신한촌은 최초의 해외 한인 집단 거주지로서 1870년대부터 한인이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, 1937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될 때까지 독립운동기지 역할을 수행했음.



○ 블라디보스톡 혁명광장

- 중앙광장으로도 불리며, 1917년부터 1922년까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소련을 위해 싸웠던 병사들을 위한 기념물이 있음.
- 중요한 국경일 행사가 개최되는 광장으로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표적인 유적 중의 하나이자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해 주는 곳.



○ 블라디보스톡 영원의 불꽃 및 해군잠수함, 개선문

- 러시아 해군 태평양 사령부 옆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참전한 군인들을 기리는 365일 꺼지지 않는 영원의 불꽃과 독일 군함 10대를 침몰시키고 현재는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C-56 잠수함, 1891년 러시아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진 개선문이 있음.



○ 라즈톨노예역

- 라즈톨노예역은 1937년 고려인 약 172,000명이 스탈린의 명령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될 때 집합한 곳으로 우리 민족의 아픔이 서려있는 곳임.



○ 이상설 유허비 참배 및 발해성터 견학

- 서전서숙을 건립하고 고종의 밀지를 받아 이준, 이위종과 함께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파견된 이상설 선생의 유허지
- 이상설 선생의 유골은 유언에 따라 유허지 맞은편에 위치한 수이푼 강에 뿌려졌다고 함.
- 우수리스크는 발해 시대 솔빈부가 위치했던 곳으로 지평선 끝의 낮은 산이 당시의 외성이며 솔빈부가 말이 유명하다는 것을 말해주듯 주변에 말이 많음.



이상설유허비 참배



발해성터 견학

○ 우정마을 방문

- 우정마을은 스탈린의 명령으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 및 그 후손들이 소련 붕괴 후 재이주하여 정착한 마을
- 로지나 서당에서 그들의 고려인들의 재이주 및 자립을 돕고 있음.



우정마을 방문

○ 최재형 고택 및 기념관

- 국민회를 조직하고 폐간되었던 대동공보를 재발행하고 한인학교를 설립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이 일본군에게 붙잡히기 전까지 거주했던 가옥이 있으며, 그 옆으로 최재형 선생의 행적을 모아놓은 기념관이 조성되어 있음.



최재형 고택 및 기념관

○ 고려인 문화센터

- 러시아 한인 이주 140주년을 기념하여 2009년에 준공된 고려인 문화센터는 연해주 일대의 고려인들을 위한 문화시설임.



고려인 문화센터

○ 안중근 단지 동맹비

- 러시아 국경도시 크라스키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전 1909년 3월 5일 12인의 애국 의사와 함께 단지동맹을 맺은 곳임.
- 단지동맹 기념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기업(유니베라)이 위치한 곳으로 기념비를 옮기고 그 주변을 국내에서 가져온 석재로 기념 부지를 조성하는 등 항일 독립운동 유적 보존에도 앞장서고 있음.



안중근 단지 동맹비

□ 중화인민공화국(People's Republic of China)

국 기		위 치 도	
일 반 현 황		정 치 현 황	
수도 : 베이징 언어 : 중국어 면적 : 약 9,596,960km ² (세계 4위) 인구 : 약 1,415,046,000명(세계 1위) 종교 : 불교, 도교, 기독교 등		공화제(과두제), 민주집중제, 전체주의, 일당제, 단원제, 단일국가 중앙집권제, 성문법주의	
경 제 현 황		공화제(과두제), 민주집중제, 전체주의, 일당제, 단원제, 단일국가 중앙집권제, 성문법주의	

○ 두만강 광장

- 두만강 광장은 북한·중국 국경지대에 위치한 곳으로 국경과 국경이 불과 몇 십여 미터로 매우 가까움.



두만강 광장

○ 명동학교 및 운동주 생가

- 1906년 설립되었다가 1년 만에 폐교된 서전서숙의 민족교육정신을 계승하여, 김약연의 주도로 서전서숙을 나온 김학연 등 애국지사들이 1908년 4월 27일 화룡현 명동촌에 설립한 학교로 개교 이래 17년 동안 1천여 명의 애국청년들이 졸업했음.
- 서시, 별 헤는 밤 등으로 유명한 저항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운동주와 송몽규의 생가로, 2015년 개봉한 영화 “동주”의 초반 줄거리 배경이 되는 곳임.



명동학교 및 운동주 생가

○ 3·13 반일릉 및 운동주·송몽규 묘지 참배

- 1919년 3월 1일 국내에서 일어난 3.1운동의 영향을 받아 용정 서전 별관에서 3만여 명이 모여 반일 시위를 하다 순국한 17명의 의사를 기리는 곳.
- 운동주와 송몽규 모두 똑같은 독립운동가지만 한국전쟁 이후 가족이 북으로 가게 된 송몽규의 경우 남북 간의 이념 대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으며 남북 분단의 비애가 느껴짐.



3·13 반일릉 및 운동주 묘지 참배

○ 연변박물관

-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문화와 이주 역사를 집대성한 곳.



연변박물관

4 시사점

- 기념비와 성 터 등 언뜻보면 ‘저게 뭐야?’하고는 그냥 스쳐지나갈 수도 있는 곳에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입혀 관광지로 운영하고 있는 점이 인상깊었음.
-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중국 연길 등의 항일유적지 탐방을 통해 교과서로만 배웠던 역사의 현장을 직접 가보며 우리 민족의 항일 독립운동사 및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, 해외 이주사, 남북 분단의 현실 등을 몸소 느낄 수 있었음.
- 또한 러시아의 고려인, 중국의 조선족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와 역사, 문화를 공유하는 같은 韓(한)민족이자 하나의 민족임을 느꼈음.
- 일제 강점기, 나라를 잃은 불우한 이유로 러시아, 중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지만, 이국땅에서도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존경스럽고 감사했음.